

특필기고

포천미협은 '반론한다'

정호양 씨의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와 관련 특별기고에 대하여 (포천신문 386호 2007년 8월 20일 발행)

올해 개최되는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경기북부작가회 회장 정호양씨는 포천미술협회가 "시의 문화정책에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함에도 고집적 별개의 수구적 지역 이기심이 발목을 잡으며 모처럼 활기를 찾아가는 지자체 미술전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또 '큰 국제행사에 지역 미협자위회에서 행사전반을 맡으려는 마찰로 배후되고 있다'며 기고한 바 있다. 이에 100여명의 포천미술협회원과 나아가 16만 포천시민을 지역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시민으로 치부해 버린 그 기사의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는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큰 국제행사 중 하나이다. 2년전 아시아미술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주된 이유였다. 비엔날레를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조직위원회에서는 개최방법을 두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적은 예산을 감안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거론하였으나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포천미술협회가 전반기에 관련됨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포천미술협회가 말하려 했다며 지역

이기주의라고 쓴 정호양씨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포천아시아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경기북부작가회 회장 정호양씨가 포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개인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지역 시민과 미협을 편협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신문에 기고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특별전은 지역작가를 배려하기 위한 참여행사의 의미가 크다. 그러한 이유로 총감독은 포천미술협회가 경기북부작가회장에 부대행사를 기획해주시길 권유하였다"고 하였는데 정호양씨에게는 권유가 있었는지 모르나 포천미술협회는 총감독으로부터 협조나 권유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경기북부작가회 정호양씨가 추진하려던 평화시장전, 가발전, 어린이미술전 등은 총감독 개인이 검토 승인한 일이 아니며 제도권내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임에도 정호양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사항을 마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처럼 경기북부작가회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등 먼저 실행하려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여겨진다. 몇몇 이들이 일의 합의를 잘못된 절차와 이해관계 때문에 야기된 문제로 특별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이를 확정된 양 추진하던 정호양씨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포천미술협회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파생된 결과에 대해 왜 지역미협과 특징인을 탓하려는지 그 지의를 꼭 밝혀야 할 것이다. 혹 자기를 과오한 뒷조로 하고 행사결과에 대해 미리 발을 빼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내는 아닌지, 예컨대 미협과 지부장을 두고 지역 이기심의 발로나 발목을 잡나 한다면 포천시의 발전과 더불어 한층 성장하려 애쓰는 포천미술협회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까.

"포천에서 행하는 사업이라고 포천미협이 주가 되어 시행해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포천 지역 작가를 배려한 특별전에 경기북부작가회장이 정호양씨는 포천미협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오로지 경기북부작가회의 가발전, 평화시장전 개최를 줄곧 주장하였다. 오히려 포천미협은 보다 진일보한 비엔날레를 위해 지역 뒷배를 지원할지 모르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려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협이 정호양씨를 배려하고 있었음은 아쉽게도 간과하고 있다.

"자부정이 기획사를 운영, 수익성 사업을 독식, 미협은 수익사업도 오픈하여 공개입찰 및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미협이 정호양씨가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대행사로 선정된 티에츠와 같은 경쟁력 있는 지역을 예우한 시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권을 독식하는 지역 이기심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어지고 반목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기고하였다. 그러나 미협 안에는 지부장 한사람이 아니라 미협 전체가 지부장을 지지하고 있다. 실사 정호양씨 주장을 인정한다면 하더라도 처음부터 비엔날레 실무에 참여한 미협위원이 단 한명도 없었음을 밝혀둔다. 권익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지우는 것이 예우인가 반문하고 싶다.

"모든 행사의 전권은 총감독이 지닌 몫이다"라는 경우 전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방적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데 비엔날레 조직위원 구성에 의하면 총감독의 행위는 기획위원회(대행사선정, 행사주제심의, 출품작심사, 출품작품심의 등 행사관련 실무사항 심의의결)의 심의를 받아 실행토록 되어있으며 총감독이 이를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함은 원천적으로 포천미술협회의 정호양씨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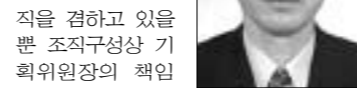
"기획위원회의 역할은 회의 진행권만 있다. 지역에서 행하는 운영과, 연주자 예우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추천"으로 표현하여 마치 금번 행사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악의적 표현을 하고 그 권한과 의무에 대해 축소자향적인 기위를 하였다. 총감독 역시 한명의 기획위원으로서 총감독

직을 겸하고 있을 뿐 조직구성상 기획위원장의 책임 하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실행할 수 있음을 아쉽게도 간과하고 있다.

정호양씨는 "조직위원회에 지부장 9명 위촉, 기획위원에 2명의 회원 포진 등 지역을 예우한 시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권을 독식하는 지역 이기심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어지고 반목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기고하였다. 그러나 미협 안에는 지부장 한사람이 아니라 미협 전체가 지부장을 지지하고 있다. 실사 정호양씨 주장을 인정한다면 하더라도 처음부터 비엔날레 실무에 참여한 미협위원이 단 한명도 없었음을 밝혀둔다. 권익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지우는 것이 예우인가 반문하고 싶다.

"모든 행사의 전권은 총감독이 지닌 몫이다"라는 경우 전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방적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데 비엔날레 조직위원 구성에 의하면 총감독의 행위는 기획위원회(대행사선정, 행사주제심의, 출품작심사, 출품작품심의 등 행사관련 실무사항 심의의결)의 심의를 받아 실행토록 되어있으며 총감독이 이를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함은 원천적으로 포천미술협회의 정호양씨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기획위원회의 역할은 회의 진행권만 있다. 지역에서 행하는 운영과, 연주자 예우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추천"으로 표현하여 마치 금번 행사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악의적 표현을 하고 그 권한과 의무에 대해 축소자향적인 기위를 하였다. 총감독 역시 한명의 기획위원으로서 총감독



이경진 포천미술협회장

정호양씨는 "조직위원회에 지부장 9명 위촉, 기획위원에 2명의 회원 포진 등 지역을 예우한 시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권을 독식하는 지역 이기심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어지고 반목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기고하였다. 그러나 미협 안에는 지부장 한사람이 아니라 미협 전체가 지부장을 지지하고 있다. 실사 정호양씨 주장을 인정한다면 하더라도 처음부터 비엔날레 실무에 참여한 미협위원이 단 한명도 없었음을 밝혀둔다. 권익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지우는 것이 예우인가 반문하고 싶다.

"모든 행사의 전권은 총감독이 지닌 몫이다"라는 경우 전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방적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데 비엔날레 조직위원 구성에 의하면 총감독의 행위는 기획위원회(대행사선정, 행사주제심의, 출품작심사, 출품작품심의 등 행사관련 실무사항 심의의결)의 심의를 받아 실행토록 되어있으며 총감독이 이를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함은 원천적으로 포천미술협회의 정호양씨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기획위원회의 역할은 회의 진행권만 있다. 지역에서 행하는 운영과, 연주자 예우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추천"으로 표현하여 마치 금번 행사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악의적 표현을 하고 그 권한과 의무에 대해 축소자향적인 기위를 하였다. 총감독 역시 한명의 기획위원으로서 총감독

韓國의 선비정신 · 76

여덟 송이의 국화꽃이 나의 손님들이다

신용개와 정광필은 금석같이 굳은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였다. 하루는 중증이 정광필에게 들었다.

"그대에게는 친구가 있는가?" 그러자 정광필이 대답했다. "신에게 친구는 별로 없고 오직 신용개 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 후 신용개가 중증을 알렸을 때 신용개가 대답했다. "그대에게는 친구가 있는가?" 그러자 신용개가 대답했다. "정광필이 신의 친구입니다."

입금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로다!" 신용개는 성격이 호탕하고 절개가 있었으며 술을 좋아하였다. 때로는 계집종을 불러 술자리에 앉혀놓고 서로 잔을 기울이며 취를 정도였다. 그는 국화꽃 향기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국화 여덟 분(盆)을 길렀다. 어느 해 가을, 여덟 분의 국화가 꽃을 활짝 피었다. 얼마나 탐스럽게 자랐는지 마루에 들여놓으니 높이가 대롱보에 닿을 정도였다. 그는 국화꽃 향기를 유독 좋아하여 대청에 들여다놓을 수 없었으니 하루는 퇴근을 한 후 집안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좋은 손님이 여덟분이나 오실 터이니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각 두 잔씩 따라주고는 자신도 얼근히 취하였다.

신용개(申用凱) 1463년(세조 9) ~ 1519년(중종 14).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개지(概之). 호는 이요정(二樂亭), 송계(松溪), 수옹(睡翁) 등이 다. 신숙주의 손자이며, 김종직에게서 배웠다. 1483년(성종 14) 사마시에 합격하고 1488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그해에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한때 투옥되었으나 곧 석방되어 직제학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 1502년 왕을 기피하는 인물로 지목되어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 형조판서를 거쳐 예조참판에 올랐다. 그러나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다시 전라도 영광에 유배되었다.

중종반정 후 형조참판에 임명되었고, 이후 대제학·우참찬·대사헌을 거쳐 이조·병조·예조의 판서를 지내고 우한성인이 되었다. 1516년에 우의정, 1518년에 좌의정이 되었다. 문명을 떨쳤을 뿐 아니라 인품 또한 깨끗하여 당시 선비들의 중심이 되었다. 저서로는 『이요정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그리고는 국화꽃 앞에 좋은 안주를 차려놓고 술병을 들었다. "내가 먼저 술을 따르리라." 그는 여덟 송이의 국화꽃에 각

송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후원하는 가운데 '포천꽃이 동화세우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민 민속예술축제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인 향토민속예술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후원하는 가운데 '포천꽃이 동화세우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민속예술축제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인 향토민속예술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후원하는 가운데 '포천꽃이 동화세우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포천틀뚝이 동화세우기' 장려상 수상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28개팀 참가 열띤 경연

지난 9월1일부터 2일까지 안산시 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서 포천문화원 '포천틀뚝이 동화세우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민속예술축제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인 향토민속예술을 전

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후원하는 가운데 '포천꽃이 동화세우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민속예술축제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인 향토민속예술을 전

1천535명이 참가했으며 58명이 참가한 '포천틀뚝이 동화세우기'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 우수, 장려상 3, 노력상 등이 주어졌다.

포천틀뚝이 동화세우기는 포천시 신북면 기리리 천주산 밑에 350년간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틀뚝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 전통 민속으로 유래대보를 다음날인 열흘새 귀산날에 동화를 세우고 마을의 귀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며 항상 평온한 가운데 마을주민 모두가 민사행통하기를 기원하는 민속의식이다. 특히 이번 민속예술제는 개막식과 폐막식 축하공연으로 브라질 삼바춤, 우크라이나 벨리춤, 필리핀 대나무춤 등의 초청공연으로 불거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서 포천문화원 '포천틀뚝이 동화세우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영복 기자 est114@paran.com

뮤지컬의 새로운 비전 버스비 버클리(Busby Berkeley)

수중발레와 마스게임을 한 번이라도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대형 스타디움과 수면 위에서 연출되는 기하학적인 패턴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모양은 꽃이 피기도 하고 그림이 피기도 하며 때로는 글씨와 추상적인 사물의 형상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가 마치 최근에 창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스게임과 수중발레에서 사용하는 기하학적인 패턴의 연출 이미지는 안무가이며 감독인 버스비 버클리(Busby Berkeley, 1895~1976)로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대 후반 경제공황이 할리우드마저 강타하며 1930년대 초반까지 영화제작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없었던 메이저 영화사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모두가 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all-talking, all-singing, all-dancing)는 포어를 앞세운 뮤지컬들이 인류들의 무분별한 복제와 함께 1930년까지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관객들은 식상하기 시작했고 뮤지컬 영화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메이저 영화사들은 가족이나 경제공황으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었던 터라 투자자 유치와 관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기 위해 정전공공해이반했다. 이때 해설처럼 할리우드에 등장한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가 버스비 버클리였다.

버스비 버클리는 많은 뮤지컬 영화 안무가나 감독들이 이미 거쳐 온 것처럼 처음 브로드웨이에서 안무를 시작했다. 사실 버스비 버클리는 훌륭한 안무가도 낸 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대에서건 스크린에서건 뮤지컬이 필요로 했던 독창성이었다. 풍부한 아이디어, 화려함과 화려함을 지닌 안무,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짙 짙 놀라운 기하학적 패턴의 구도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버스비 버클리는 댄스들의 개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버스비 버클리 이전엔 그 누구도 눈부신 패턴 속에서 아름다운 코러스 걸들의 무리를 돌보이게 하지 못했다. 우일 그의 댄스창조물들은 조현실적인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때때로 배우나 댄서들을 꼭두각시로 다루는 그의 행동이나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작업 스타일로 인해 많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 1939)의 개봉과 함께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주디 갈랜드(Judy Garland)가 <베이브스>인 아랍스(Babes in Arms, 1939) <스트라이프 업 더 밴드(Strike Up the Band, 1940)> 등 일명 '베이브스(Babes) 시리즈' 작업을 할 때 버스비 버클리로 인해 끊임없는 투쟁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1차세계대전중이 아전포병중이

로 전쟁에 참가한 버스비 버클리는 전쟁터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정교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배웠다. 버스비 버클리는 웨이에서 안무가로 활동하면서부터 코러스 걸들의 기술적인 춤을 배웠다. 버스비 버클리는 코러스 걸들의 고난이도 기하학적인 패턴 안에서만 움직이고 적응할 수 있는 코러스 걸들을 선호했다. 그가 안무한 뮤지컬 댄스들은 당시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방대하고 조직화된 장면들이었다. 여러무대 위에서 소화해 내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댄스들은 유성영화가 도래하며 할리우드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할리우드 뮤지컬이 대중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큰 요인은 즐거움과 새로움이었다. 버스비 버클리의 등장은 곧 영화 촬영기법의 발전과 뮤지컬 영화의 새로운 비전을 의미했다. <우피(Whoopie, 1930)>를 시작으로 버스비 버클리는 기존의 획일적인 안무와 카메라 샷을 탈피하는 실험을 시작했는데 공간, 움직임, 그리고 오버헤드 샷(overhead shot) 등으로 정교하게 만든 뮤지컬들을 창조해냈다. 1933년은 버스비 버클리의 인기 가 최고 절정에 이르렀던 해이기도 하다. 경제공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뮤지컬 영화의 새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골드 디저

1933(Gold Diggers of 1933)>, <2번가(42nd Street)>, <푸트라이트 퍼레이드(Footlight Parade)> 등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전혀 퇴색되지 않은 작품으로 남아 있다.

버스비 버클리의 창조적이고 종종 섹스적인 댄스 댄스들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특히 반란에 자기를 고안한 기하학적인 패턴 안에서만 움직이고 적응할 수 있는 코러스 걸들을 선호했다. 그가 안무한 뮤지컬 댄스들은 당시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방대하고 조직화된 장면들이었다. 여러무대 위에서 소화해 내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댄스들은 유성영화가 도래하며 할리우드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복합적인 기하학적 패턴의 카메라 샷으로 만화경처럼 변화무쌍한 영상(kaleidoscopic on-screen performances)을 만들어낸 버스비 버클리는 오늘날 뮤지컬의 선구자로 부르기엔 부족함이 없다. <42번가(42nd Street, 1933)>, <골드 디저(Gold Diggers) 시리즈(33/35/37)>, 주디 갈랜드(Judy Garland)와 미키 루니(Mickey Rooney)가 주연한 '베이브스(Babes) 시리즈' 등은 오늘날에도 DVD나 영상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명작들이다.



윤우엽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오지체험의 감동 전하는 수필가 되겠다"

경북대학 최기종 교수 월간 스토리문학 수필가 등단

"평소 여행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90여개국 이상의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의 길에서 접한 보고 느낀 점, 개선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메모하던 평소의 습관 덕분에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생생한 이야기

의 소재들을 꽤 간직하고 있었는데 수필의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한다."

월간 스토리문학 2007년7월호에 수필가로 등단한 경북대학 관광과 최기종(사진) 교수의 등단 소감이다. 최 교수는 등단작품으로 '잘 산다는 것은', '자월도를 다녀와서'를 발표했는데 박봉배, 이현복 심사위원은 "최기종 작가의 글은 소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0)

소복(素服)의 모정(母情)

옛날 내 고향 포천에는 지극한 모성애(母性愛)로 고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머니가 많았으며 또한 남편을 잘 모시는 아내도 많아 열녀(烈女)가 많기로도 유명하였다. 장거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죽을 파는 집이 있었다. 쫓겨 부족한 아이에게 먹이는 암죽을 비롯하여 겨울 장꾼들이 잘 먹는 찹쌀 음식이나 수수 음식이 넣은 죽이 있는가 하면 술 잘 먹는 사람들의 주먹을 풀어주는 녹두죽도 팔았으며 영양 만점의 잣죽도 팔았고 공죽도 매우 인기있는 죽집의 메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둑어둑한 황혼이 깃들면

젊은 아낙네가 짚반에다 작은 종지 하나를 얹어 가지고 죽을 사러 오는 게 아닌가? 그것도 어린 아기가들이 먹는 찹쌀 암죽을 사가는 젊은 아낙네는 울 때마다 흰 소복을 입고는 고개를 숙이고 암죽을 사가지고 가곤 하였다.

그런데 죽을 파는 할머니는 팔 때마다 고개를 갸웃웃 하고는 하였다. '이삼대 이상하고 말고... 소복에다... 암죽을 ... 그것도 한 고이 아닌 한 종지만을 사가다니... 이상한지고... 암 이상하고 말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서 하루는 찹쌀 암죽을 사가는 젊은 소복의 아낙의 뒤를 밟아 가서 그의 집을 알아놓고

아주 작은 양의 찹쌀 암죽을 사가는 연유를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찹쌀 암죽을 팔자마자 소복 아낙의 뒤를 밟아 간 죽 집 할머니는 소복한 아낙의 집이 공동묘지 근처인 것 만을 알아놓았다. 이른날 남편과 함께 소복 입은 여인의 암죽 종지 짚반을 든 발걸음의 뒤를 따라 공동묘지 가까이 이르자 그만 기절초풍을 하여 누워 넘어질 뻔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소복의 여인은 찹쌀 암죽 종지를 든 채 공동묘지 어느 묘 앞에서 간데 없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다시 한 번 뒤를 밟았다. 이번에는 어느 무덤으로 들어 가는 게 보였

다. 그래서 그 이른날은 파는 일은 죽집 할머니가 맡기로 하고 무덤 뒤에서 죽집 할머니가 물러 숨어서 소복 입은 여인이 찹쌀암죽을 얹은 짚반을 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정말 인간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복의 여인이 무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는 갖나 기에게 찹쌀 흰죽(암죽)을 먹이는 게 아닌가? '앗불새!' 그만 암죽먹이는 소복 여인이 죽집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흰배백산 어디론가 부리 나게 사라지고 만것이었다. 그 이튿날 부리는 소복의 여인이 죽집에 죽을 사러 오지 않은 것은 물론 공동묘지에서는 젊은 여인의 울음 소리가 1년 내내 들렸다는 일담이 전하여 묘정의 영인함을 일깨운다.

초대 漢詩 回顧祖國光復(회고조국광복)



李曉鍾 포천한시사 대표

大韓光復幾經年(대한광복기경년) 錦繡江山斷邊境(금수강산단경년) 대한이 광복 된지 몇 해나 지났는가 금수강산이 경계가 나뉘어져 있도다.

南北和平災滅雪(남북화평재멸설) 同胞互諒恨消煙(동포호양한소연) 남북이 화평하면 재앙 눈녹듯이 사라지고 동포가 호양하면 한이 연기 같이 사라진다.

惟哀半月非圓致(유애반월비원치) 極善千溪併介全(극선천계병합전) 반달은 둥글지 못한 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천계는 통합 한 것을 부러워한다.

祈願神明媿保祐(기원신명회보우) 達成統一後孫傳(달성통일후손전) 신명께 항상 보우 할 것을 원하노니 통일을 달성해서 후손께 전한다.